

바이든, 아프간 20년 주둔 완료 선언

안전한 통행 보장토록 조율
탈레반 “완전한 독립” 자측
국제·국내선 등 운영 재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날 30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철군 완료 선언을 하고,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은 즉각 “완전한 독립”을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프간 철군 종료 직후 낸 성명에서 “지난 17일간 미군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수작전으로 12만 명이 넘는 미국과 동맹의 시민을 대피시켰다”며 “아프간에서 20년간의 우리 군대 주둔이 끝났다”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예정 시한 31일보다 하루 앞당겨 철군 종료를 발표한 직후, 군 통수권자가 이를 최종 확인한 것이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8월 31일 이후 아프간 주둔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나의 결정에 관한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또 탈레반이 아프간을 떠나길 원하는 이들에게 안전한 통행을 약속했다면서 전 세계가 탈레반의 이런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아프간을 떠나길 원하는 모든 미국인과 아프간 파트너, 외국 국적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도록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조율에 나서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한 미군과 외교관 ▲피란민을 식별하고 지원한 잠전용사와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피란민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탈레반도 곧바로 입장을 내놨다.

탈레반 대변인 자비툴라 무자하드는 “미군이 카불 공항을 떠났으며 우리나라는 완전한 독립을 얻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른 탈레반 대변인 모하마드 나임은 스포트니크 통신에 “아프간 전체 영토가 탈레반 통제에 있다”며 “마지막 외국군이 아프간을 떠났고 이제 우리나라는 자유와 독립을 얻었다”고 말했다.

탈레반 간부 아나스 하나키는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다시 역사를 만들었다”면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20년 아프가니스탄 점령이 오늘 밤 끝났다”고 밝혔다.



탈레반 소속의 특수부대원들이 지난날 31일(현지시간) 미군의 철수가 완료된 카불 국제공항의 정문에 도착하고 있다. /카불 AFP=연합뉴스

탈레반 대원들도 어둠 속에서 마지막 미군기가 공항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승리를 자축했으며 축포를 쏘아 올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미군이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공항은 탈레반 통제에 놓였다고 알자지라 방송은 전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카불 공항에 항공교통 관제 서비스가 없다면서 미국 민간 항공기의 아프간 상공 운항을 전면 금지했다.

탈레반은 국제선·국내선 등 공항 운

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나임 대변인은 스포트니크 통신에 “공항 운항 재개가 우선 순위 중 하나”라면서 “우리 목표 중 하나는 국내 전역 뿐만 아니라 바깥 세계와의 소통과 운항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탈레반은 아프간 장악 이후 대외적으로 우호한 태도를 보여 왔지만, 아프간 안팎에선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다. 수만 명이 아프간 탈출을 시도해 왔으며 카불 공항이 거의 유일한 항로 탈출구 역할을 해 왔다. /연합뉴스



미국 공군 항공기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날 30일(현지시간) 수도 카불 국제공항에서 이륙하고 있다. /카불 AFP=연합뉴스

브라질 불법금광개발업자 급증
삼림 파괴·원주민들 생존 위협

브라질에서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이 삼림 파괴는 물론 원주민들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환경관련 비

정부기구(NGO)와 대학, IT 기업 등이 참여하는 조직인 맵비오마스(MapBiomass)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의 삼림과 원주민 보호 지역에서 불법 금광개발업자들이 각각 301%와 495% 증가했다.

브라질의 환경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삼림과 원주민 보호지역에서 금광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2019년에 출범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가 경제적 개발 이익을 앞세워 규제를 다폭 완화하면서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이 빠르게 늘었다.

환경 관련 NGO인 인간·환경·아마존 연구소(Imazon)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파괴된 열대우림 면적은 1만476km에 달했다.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원주민 공동체인야노마미 부족 거주지역은 불법 금광 개발업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은야노마미 거주지 곳곳을 파헤치면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간인 대피 지원 일본 자위대 ‘빈손’ 철수

일 언론, 실패 경위 규명 촉구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탈출을 희망하는 일본대사관 근무 현지 직원 등의 국외 대피를 돕기 위해 파견된 일본 자위대가 별 성과 없이 철수한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 시한 종료에 맞춰 아프간인 대피 지원을 위해 파견한 자위대를 이르면 1일 철수시킬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대사관과 국제협력기구(JICA) 등에서 일한 아프간 직원 및 그 가족 등 500명가량을 대피시키기 위해 육상자위대원 등 300여 명과 수송기 3대, 정부 전용기 1대를 지난날 23일부터 아프간 인접국인 파키스탄으로 보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거점을 둔 자위대 수송기는 지난날 25일 이후 카불 공항에 여러 차례 착륙했지만, 일본을 위해 일해온 아프간 현지인은 한 명도 대피시키지 못했다. 대피를 희망한 아프간인들을 공항으로 데려올 준비를 제대로 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대피 지원용 수송기 파견 결정이 늦었다는 비판과 함께 카불 주재 일본대사관 직원들이 먼저 대피해 대피 지원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날 26일 카불 공항 인근에서 발생

한 자살폭탄 테러 영향으로 일본 정부가 주선한 10여 대의 버스 편으로 공항에 집결하려 했던 수백 명의 현지인이 공항에 접근하지 못하는 악재도 겹쳤다.

자위대는 결국 지난날 26일과 27일 각각 미군이 탈출 지원을 요청한 아프간 이전 정부 관계자 14명과 교도통신 아프간 통신원으로 일해온 자국민 1명만 파키스탄으로 대피시켰다. 이후 일본 정부는 이슬라마바드 공항에 수송기를 대기시킨 채 기회를 살폈지만, 미군이 철수한 후에는 카불 공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수송기를 이용한 대피 작전을 끝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자위대 수송기 철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아프간에는 현재 당장 출국을 원하지 않는 소수의 일본인과 국외 대피를 희망하는 일본대사관 등의 아프간인 직원과 가족이 500명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지난날 30일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현지 정세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은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이번 대피 지원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며 경위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서 증오범죄 12년만 최다

아시아계 공격 73% 급증

지난해 미국에서 12년 만에 가장 많은 증오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날 30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증오범죄 연례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FBI는 전국 1만5,000여 개 사법기관이 보고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발생한 증오범죄는 2008년 이래 가장 많은 7,759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증오범죄 건수와 비교하면 6%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증오범죄 중 인종 또는 민족 혐오에 따른 범죄는 전체의 61.9%로 가장 많았고, 성적 지향과 종교적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는 각각 20.5%, 13.4%를 차지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린 아시아계를 겨냥한 공격 행위는 2019년 158건에서 지난해 274건으로 73.4% 급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시민단체들이 백

인 민족주의 득세와 소수 민족에 대한 적대심 확산 등을 경고해온 가운데 증오범죄가 12년 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범죄 유형 별로는 협박이 53.4%로 가장 많았고 단순 폭행(27.6%)과 가중폭행(18.1%)이 뒤를 이었다. 또 증오범죄와 결부돼 22건의 살인과 19건의 강간 사건도 발생했다.

FBI에 따르면 작년 증오 범죄 피해자는 1만 명이 넘었고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백인이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흑인 대상 증오범죄가 늘고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도 뚜렷하게 늘었다”며 “지난해 증오범죄 통계는 포괄적인 대응이 긴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CNN 방송은 FBI에 지난해 증오범죄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사법기관은 3,000여 곳에 달한다고 전했다.

아시아계 인권단체 ‘스톱 AAPI 헤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3·6월 자체 집계한 아시아계 겨냥 증오범죄만 6,600여건에 달한다. /연합뉴스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